

The Music of Flowers

아름다운 꽃의 음악



A TRUE STORY OF A GIRL WHO LEFT NORTH KOREA

탈북한 사람의 이야기

그림 ELISE LAMBERT 번역 GRACE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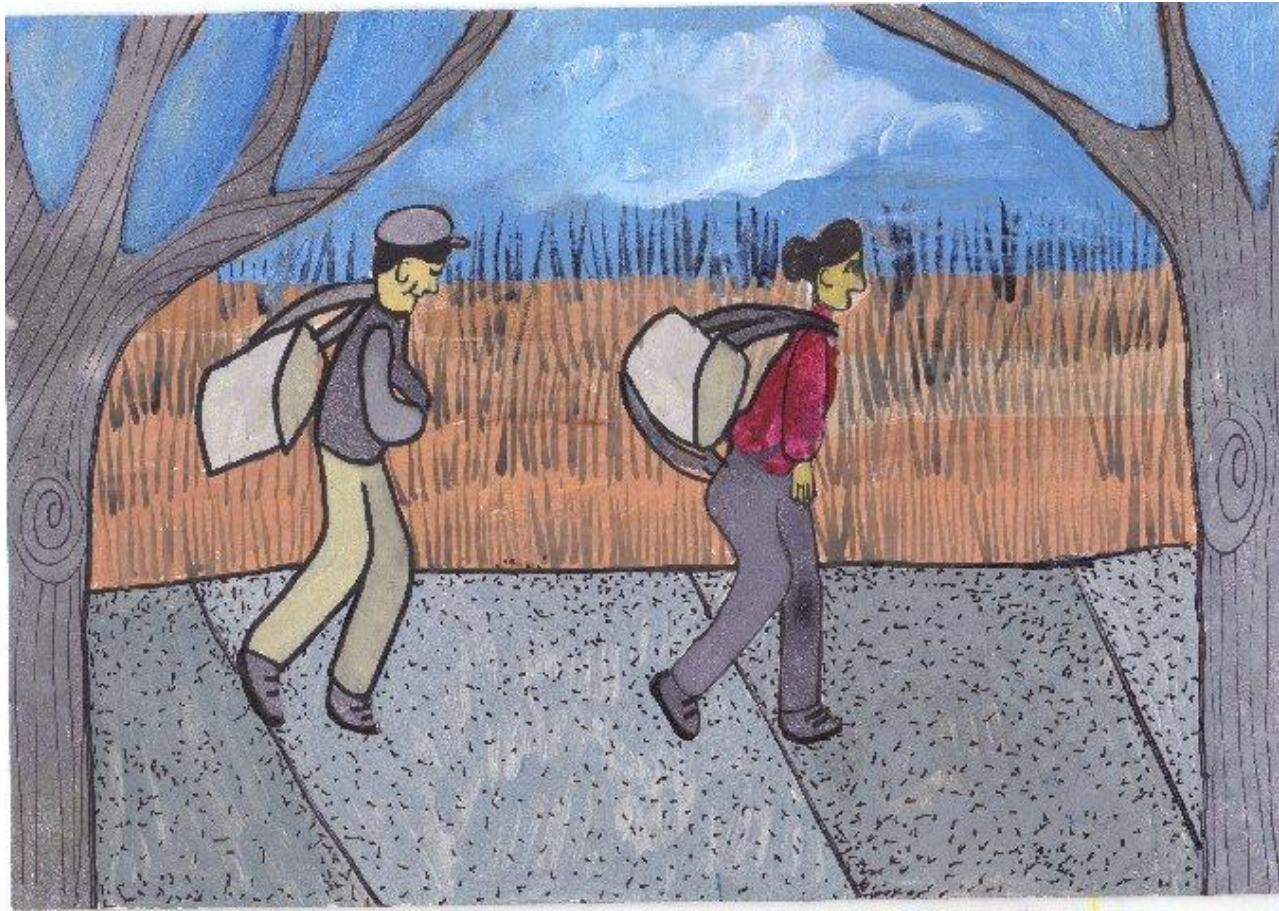
I live in North Korea, a beautiful land of mountains and forest.

저는 아름다운 산과 숲이 있는 북한에서 삽니다.



I like going to school and singing with my friends.

저는 학교 가는 것이랑 친구들과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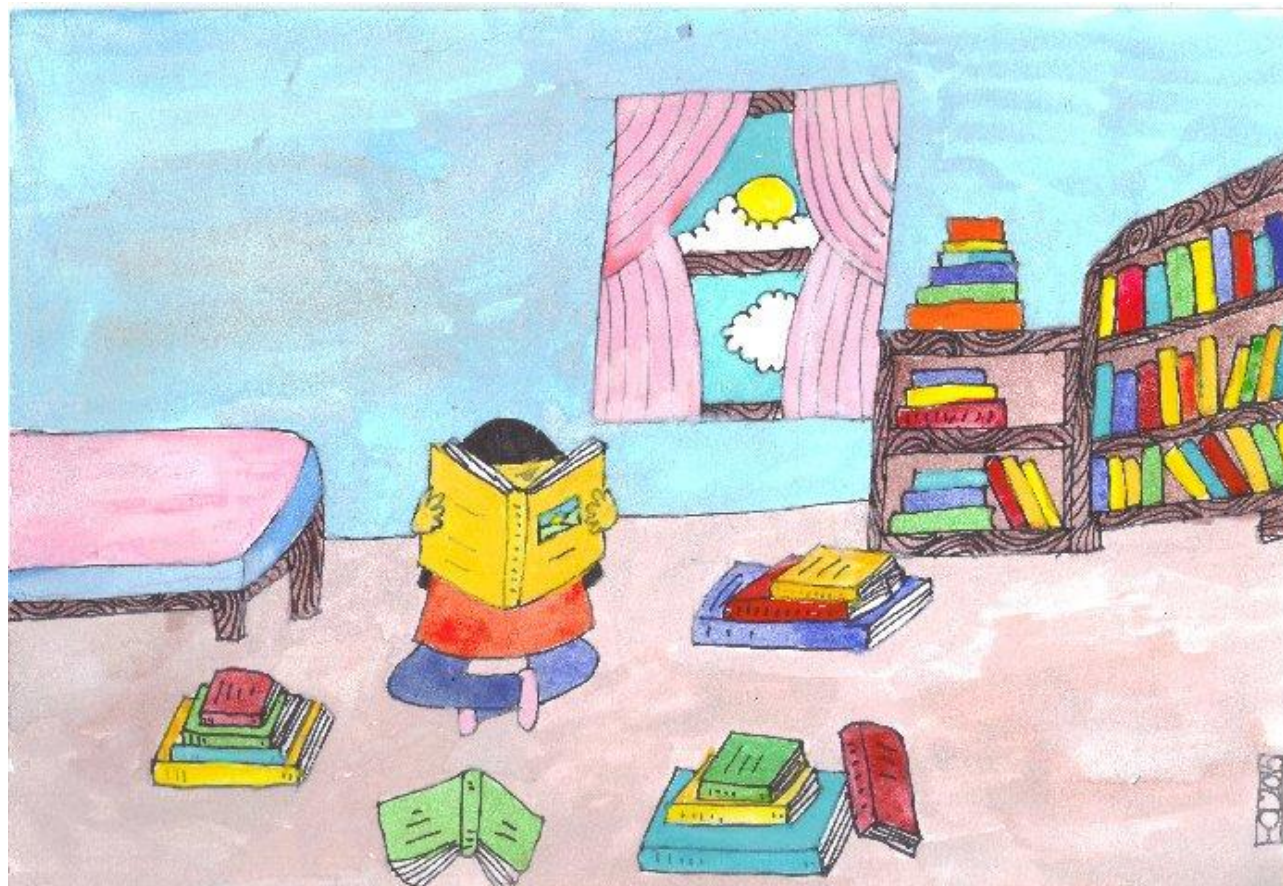
Mamma says that life is hard for many here. Farmers work hard to plant and harvest,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food for everyone. I think the grain has a hard time, too. It has a hard time trying to grow. I see farmers carrying heavy packs through the fields. I want to say,
“Hello! Keep up hope!”

엄마는 제게, 이곳의 많은 사람들의 삶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농사꾼들이 열심히 씨앗을 심고 추수를 해도 모두에게 나눠줄 음식은 언제나 부족해 보입니다. 낱알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자라려고 노력을 합니다. 농부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밭에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힘내시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At nighttime, I look up at the pretty stars, so many, and so bright, and I think of
how big the world must be...

밤에 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고 빛나는 걸 보니 이 세상이 대단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One day, I want to travel to another country to learn and study. I gather as many textbooks as I can so that I will be ready.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 어느 날에 다른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교과서를 수집합니다.



My father is a musician. When I hear him play beautiful melodies on his violin, it makes me happy. It helps me to dream.

저희 아버지는 음악가입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는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꿈을 꿀 수 있게 합니다.



I dream at night of lovely music and sweet-smelling flowers of all shapes and colors.

밤에는 아름다운 노래와 온갖 크기와 색과 향을 갖춘 꽃의 꿈을 꿉니다.



But when I wake up and walk through my town, there are no flowers anywhere.
No flower pots or gardens. No flower shops. The world seems gray and sad.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마을주변을 걷다 보면 꽃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화분도 정원도 없습니다, 꽃집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울하고 흐려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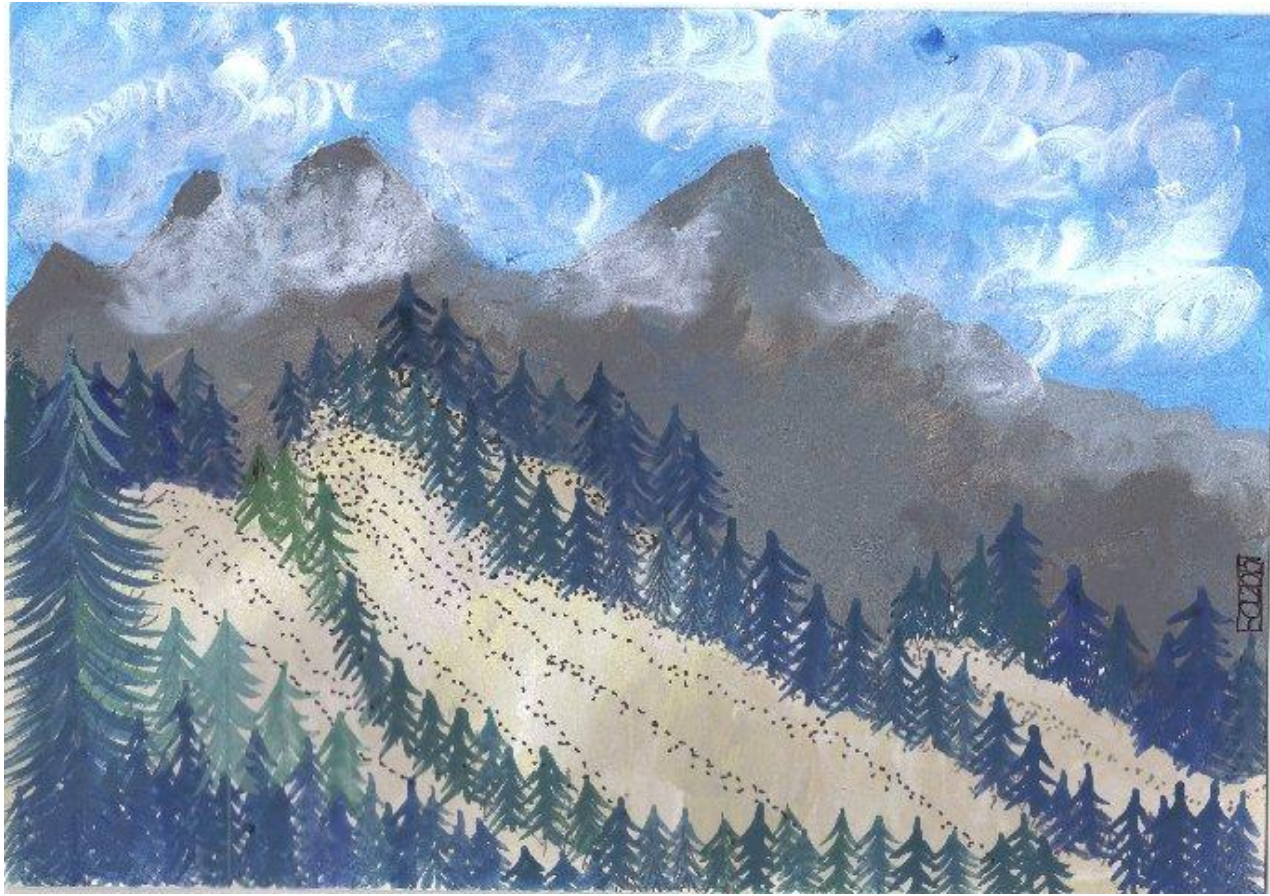
I want to plant seeds and grow flowers in my family's plot of land. How happy and colorful home would look! I prepare the earth, humming a tune.

우리가족에게 주어진 작은 땅에다 씨앗을 심고 꽃을 키우고 싶습니다. 마당이 얼마나 예쁘고 화려할지 상상이 됩니다.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땅을 갈기 시작합니다.



But Momma and Papa scold me. They tell me that the land must be used only for growing food, corn and potatoes. My belly needs food, I know, but my heart wants flowers.

하지만 엄마랑 아빠는 저를 꾸짖습니다. 땅은 옥수수과 감자를 키우기 위해서만 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제 배는 음식을 필요해하지만, 제 마음은 꽃을 원합니다.



I go up into the mountains. Their peaks pierce the sky like dragon's teeth. Here I find wildflowers blooming. I gather them with a smile and bring them to my parents. Momma and Papa also have hearts as well as bellies.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봉우리들은 용의 이빨처럼 하늘을 뚫습니다. 여기는 야생초가 피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꽃을 모아서 부모님에게 갖다 줍니다. 엄마아빠도 채워줘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Momma and Papa are delighted with my gift. They tell me I am kind, that I am pretty.

엄마아빠는 제 선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게 착하다고 예쁘다고 칭찬해주십니다.



I bring a bouquet to my teacher at school. She smells them deeply and smiles at me.

학교선생님을 위해서도 꽃다발을 준비해갑니다. 향을 맡으시고 저를 보며
웃으십니다.



I want everyone I love to have a present of these mountain flowers. I gather a bouquet for each person, jong-chang flowers, damjari flowers and dumeja-un flowers.

제가 사랑하는 모두에게 이 꽃들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종창꽃, 담자리꽃, 두메자운꽃을 모읍니다.



One day, I will have a garden of my own, and I will keep a flower shop, with the most wonderful bouquets anyone has ever seen. Music and flowers keep this dream alive in my heart.

언젠가는 저만의 정원과 꽃가게를 가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다발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음악과 꽃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꿈이 숨을 쉬게 합니다.